

■ 면세유·비료값 '高高'... 시설재배 농가·양식장 어민 '苦苦'

“일할수록 손해, 한숨만 나옵니다”

고유가와 비료값 상승으로 광주·전남지역 시설원예농가와 양식장 어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농어민들은 열 손실을 막기 위해 부직포를 설치하고 양식장의 온도를 낮추는 한편 인건비라도 줄여보기 위해 가족들을 동원, 갖가지 고육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경영 부담을 줄이기에 역부족이다.

비료 구입 시 한 포당 25~30% 정도 지원해주던 정부보조금이 2005년부터 폐지되면서 요소비료와 복합비료 한 포대(20kg) 가격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무려 72%나 뛰어올랐다. 정씨는 “농사 지어 자식과 친척들 조금씩 가져다주고 남은 것을 내다 팔면 1년 생활비 대기조차 빠듯하다.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인데 비료 등 자체값은 계속 상승만 하고 있으니 농사를 계속 해야할지 고민 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손불면 석철리에서 뽕장어 참단양만단지를 운영 중인 남해운(55)씨는 병커C유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200ℓ 당 2만8천원이나 올라 한 달 평균 112만원을 추가 지출하고 있다. 결국 남씨는 양식장 실내온도를 2도 가량 낮췄다. 장어는 28도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지만 출하시기가 한 달가량 늦어지더라도 26도로 온도를 낮춰 기를 사용하는 것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재배하는 홍완식(37)씨도 기름값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인부 4명을 고용했지만 올해는 부인과 단둘이 일을 하고 있다. 다음 달 졸업시즌 즈음엔 인근 친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 예정이다. 이처럼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들을 위해 전남도와 각 시·군은 대체에너지 보일러 교체와 보온 커튼 설치 등 시설 보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kps@kwangju.co.kr



시름 속 국화 따기 출하를 앞둔 국화를 따고 있다.

최근 기름값과 비료값이 폭등함에 따라 화훼 재배 농가 등 광주·전남지역 시설원예 농민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무안군 청계면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농민들이 국화를 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7일 광주시 남구 구소동 도덕마을 이명수(50·오른쪽)씨가 직접 재배한 파프리카를 든 채 자체 개발한 온풍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절약형 온풍기 개발... 고유가 버텨내요”

시설재배농 이명수씨 “난방비 10분의 1로 줄여”

“고유가에도 끄떡없습니다.” 광주시 남구 구소동에서 시설재배 하우스 4개 동(6천611.6㎡)에서 파프리카와 한라봉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 이명수(50)씨는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다른 시설 하우스 재배 농민들이 난방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겨울철 농사를 포기하는 것과는 달리 이씨는 하우스 실내온도를 영상 13~16도로 유지하려면 겨울에만 1

천만원 이상의 난방비가 들어 수입이 줄어들지만 이씨는 이런 걱정을 없었다. 자체 개발한 온풍기로 난방비를 10분의 1로 줄였기 때문이다. 이씨는 2년 전 친구 집에 들렀다가 20kg 짜리 펌 LPG용기가 열기에 후끈 달아오른 모습을 봤다. 1m 이상 접근하지 못할 만큼 열 효율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평소 난방비 걱정에 고민하던 이씨는 공장 집으로 달려와 기존 난방용 온풍기(16만kcal/h)를 개조했다. 기존 시설에 열 전도율이 높은 50kg 짜리 빈 LPG가스통 2개를 넣은 것이다.

이후 하루 평균 난방비는 15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었다. 보일러 설치비용도 대당 40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 절감했다. 최근 이 같은 성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인근 시설재배 농민들이 난방용 보일러 설치방법에 대해 잇따라 문의하고 있다. 이씨는 “이젠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두 발 뺀고 잔다”며 “겨울철 큰 돈 안들이고 파프리카와 한라봉을 생산해 서울 등지에 판매하고 있다”고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다.

이종형 기자 gilee@kwangju.co.kr

허위서류 작성 국가 보조금 13억 ‘꿀꺽’

업체 대표·공무원 적발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긴 업자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관련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나주경찰은 27일 국비 지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 보조금 10억여원을 챙긴 모 영농조합 대표 김모(52)씨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계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인 ‘폐 플라스틱 고품화 연료(RPF) 소각열 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허위 서류를 나주시에 제출해 국가 보조금 13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RPF 소각열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폐 플라스틱 등을 고체로 만들어 태움으로써 발생하는 열을 농가 시설하우스에 필요한 난방으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총 19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17억원을 산업자원부와 나주시가 나눠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2억원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난 것처럼 예금통장 사본을 만들고 허위 계약서·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나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무면허 설치 공사를 하면서 김씨에게 공사 지원금보다 적은 액수의 ‘이면 계약서’를 만들어 준 시공 업체와 이 같은 서류를 제출받고도 제대로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지원금 지급을 결정해 나주시청 공무원 3명을 함께 입건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나원침 (7420) 김종두



사기 수배자 검문 피하려다 추락사

사기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30대가 경찰의 검거를 피하려다 모텔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27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K모텔에서 사기사건 수배자인 김모(30·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씨가 7층 객실 창문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광주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수배자가 투숙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객실 문 밖에서 김씨의 신원확인을 요구하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현장 출동 직후 모텔 종업원을 불러 예비 열쇠로 문을 열

려고하자 김씨와 함께 투숙한 애인 김모(여·22)씨가 문을 열고 나왔으며, 열린 창문을 확인해보니 수배자 김씨가 커튼과 함께 건물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사기와 재물손괴 등 5건의 혐의로 지난 2006년 4월부터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검거를 모면하기 위해 커튼에 매달려 숨어있다가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김씨의 애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services like individual housing and apartment balconies.

송일국씨 “20억 손배소 제기할 것”

송일국씨 “20억 손배소 제기할 것”

“랄런트 송일국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소송과 함께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

“송일국의 법을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2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28일 해당 기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하고,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여성 월간지의 프리랜서 기자 A씨는 “지난 17일 송일국씨가 휘두른 팔에 얹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쳤다”고 주장하며 지난 24일 송일국을 폭행 혐의로 고소.

“그러나 이에 대해 송일국의 매니저는 “송일국씨와 A씨는 옷깃이 스친 적도 없다”면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를 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

연합뉴스

놀이기구서 추락 2명 부상

27일 오후 1시25분께 광주시 북구 생운동 K놀이공원에서 고속 회전 놀이기구를 타던 노모(10)군 등 어린이 2명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군 등이 얼굴을 다쳐 광주 일곡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날음’에 썰매로 바닥에서 약 30cm~1m 높에서 시속 80km로 회전하도록 돼 있으며, 이날 사고는 놀이기구가 멈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놀이기구 의자와 이를 회전시켜 주는 중심축을 연결하는 지름 5~6cm, 길이 10cm의 철제 빔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놀이공원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형 기자 gilee@

빙초산 마신 주부 숨져

2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10시30분께 동구 용산동 주택에서 강모(여·35)씨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남편(35)이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당시 강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빙초산을 술로 착각해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

Advertisement for '발기불능수술' (Erectile Dysfunction Surgery)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a clinic.

A large advertisement for '조이트레블' (Joitrel) real estate agency,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contact details.